

임철우 초기 중·단편 소설 연구

- 역사적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적 기억을 중심으로 -

김주선*

목 차

1. 들어가며
2. 6.25 및 5.18 폭력의 구조와 책임 연관
3. 망각과 트라우마적 기억 및 책임
4. 트라우마적 인물의 묘사와 의미론적 탐구의 상호 보완성
5. 나가며

〈국문초록〉

본고는 임철우 초기 중·단편 소설에 나타난 역사적 폭력의 구조와 이 같은 폭력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갖는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임철우는 6.25와 5.18의 폭력 구조에 대한 소설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서 증오와 원한의 고리가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이때 메커니즘 속의 모든 이들은 사건을 만들어내고 만들어가는 책임자다. 이는 임철우가 파악한 역사적 폭력의 한 일반적 구조다. 다른 한편 그와 같은 사건을 트라우마적 차원에서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임철우의 초기 소설이 5.18과 같은 트라우마적 사건을 서사화하는 두 가지 방식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먼저 임철우의 초기 소설에서 5월 광주를 기억하는 방식은 대개 과도한 죄책감과 관련된 병리적 차원으로써 이는 독자에게 모종의 불길함을 끝없이 안겨준다. 그러나 트라우마적 기억은 그 기억 속에 간혀 실제 5.18의 진실에 관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한다. 따라서 임철우의 초기 소설은 트라우마적 사건의 병리화와 더불어 그 사건의 진실에 대한 의미론적 재현 작업을 요청한다. 즉 그는 이미 양자의 길항관계를 숙고하고 있었던 셈이다.

주제어: 6.25, 5.18, 폭력의 구조, 트라우마적 기억, 글쓰기, 임철우

*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1. 들어가며

다작의 작가임에도, 임철우가 탐구하는 소설 세계는 일관되게 존재한다. 그에게는 개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역사적 폭력과 그 폭력에 휘말린 사람들의 고통을 그려온 작가라는 명명이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 그의 첫 번째 소설집인 『아버지의 땅』에서부터 가장 최근의 소설집인 『연대기, 괴물』에 이르기까지 6.25, 5.18, 4.3, 태평양 전쟁, 베트남 전쟁 같은 거대한 역사적 폭력 사건은 상례다. 물론 사건들을 다루는 방식이나, 그 사건에 얽힌 인물들의 모습을 그리는 방식은 각각의 소설마다 다르다. 임철우는 역사적 폭력의 구조-하나의 거대한 권력을 동반한 힘이 특정한 집단에 침입하면, 그 권력과 힘에 동조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가 서로 대립하고 애초의 원인 제공자는 사라지는 구조-를 보여주기도 했고, 폭력에 가담한 자들의 원한이나 적대를 보여주기도 했으며, 희생된 이들의 애도의 서사를 그리기도 했다. 이는 임철우에 대한 저간의 평가와 상응하는 지점이다. 일반적으로 임철우는 부끄러움, 죄의식, 역사적 폭력을 그린 작가로 존재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임철우의 초기 중·단편 소설에 대한 평론이나 연구논문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공종구는 임철우의 초기 소설 중 5.18에 관련한 소설에 나타나는 부끄러움과 죄의식에 광주 서사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서술적 특징을 탐색했다.¹⁾ 김주언은 임철우의 초기 소설에 나타나는 가족 로망스²⁾, 유흥주는 임철우 초기 소설에 나타난 고백과 독백의 문체가 죄의식과 부끄러움이라는 의미를 강화하기에 적합한 언어임을 드러낸다.³⁾ 이동제는 임철우의 초기 소설에 나타난 서정성이 죄의식과 연관

1) 공종구, 「임철우 소설의 트라우마: 광주 서사체」, 『현대문학이론연구』 제11집, 현대문학이론학회, 1999, 5~24면.

2) 김주언, 「임철우 소설의 가족 로망스: 198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1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1, 153~169면.

3) 유흥주, 「임철우 소설의 의미 강화 기법 연구 - 『봄날』 이전의 중·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3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101~122면.

된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요청될 수밖에 없었던 내면 치료의 기제임을 밝힌다.⁴⁾ 임철우 초기 소설에 대한 대표적 평론이라 할 수 있는 김병익⁵⁾과 성민엽⁶⁾의 글은 임철우 소설 세계에 나타나는 폭력성과 폭력의 구조에 따른 원인과 적대 관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임철우의 초기 소설에서 강조되는 게 이 뿐만은 아니다.

그간 자세히 조명되진 못했지만 임철우 초기 소설에는 사건에 얽힌 인물들의 책임 연관과 80년 5월에 대한 정신병리화 역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트라우마적 인물을 통해 5월의 고통을 드러내는 방식은 임철우 초기 소설만의 특징이다. 이후 발표된 소설에서는 트라우마적 모습보다 사건의 진실 재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왜 병리적 차원보다 진실 재현적 차원의 서사 비중이 더 커지는가. 이를 해명하기 위한 계기를 임철우의 초기 소설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인물들의 책임 연관과 트라우마적 모습은 임철우의 초기 소설에 나타난 중요 요소인 망각과 기억의 문제와도 연결되는데 그 중 인물들의 트라우마적 차원은 5월의 진실에 대한 서술 요청과 연결된다. 이는 임철우가 트라우마적 서사의 차원과 진실을 위한 재현적 서사의 차원을 동시에 숙고하고 있었다는 반증이 된다. 거꾸로 말해 임철우는 트라우마적 서사의 한계와 재현적 서사의 한계 모두를 사유하고 있었던 셈이다. 본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서사화 방식을 각각의 문제를 보완하는 길항 관계임을 확인할 것이며, 이 모든 논의는 결국 임철우의 소설 세계를 다시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4) 이동재, 『1980년대 임철우의 소설에 대한 한 가지 독법』, 『우리말 글』 제65집, 우리말글학회, 2015, 233~263면.

5) 김병익, 『연민 혹은 감싸안은 시선』, 『달빛 밟기』, 문학과지성사, 1987.

6) 성민엽, 『폭력과 화해』, 『물 그림자』, 고려원, 1991.

2. 6.25 및 5.18 폭력의 구조와 책임 연관

임철우 초기 소설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망각과 기억, 책임, 트라우마적 상태의 인물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6.25와 5.18 폭력의 구조와 그에 얽힌 이들의 책임 연관에 대해 자세히 짚어야 한다. 역사적 폭력의 구조 문제는 대개 6.25와 5.18을 중점으로 다루어진다. 임철우의 초기 소설에 나타난 역사적 폭력의 구조성은 그의 첫 번째 소설집에 실린 「곡두 운동회」에서부터 드러나는데 그 폭력에 대한 책임 문제는 후에 발표된 『볼록거울』에서 더 심세하고 명확해진다. 「곡두 운동회」는 평화로운 마을에 6.25로 인한 이데올로기적 폭력이 개입하면서 발생하는 사건을 다룬다. 외부의 침입자가 총을 들고 사상 검증을 하며 목숨을 위협하는데 그 폭력은 곧 마을 사람들 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인한 폭력으로 변형된다. 이때 최초의 침입자는 어느새 마을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진다. 사람들은 최초의 침입자가 만들어낸 어떤 틀 내에서, 그 틀 자체를 자각하지 못한 채 서로 적대한다. 이것이 임철우가 그리는 폭력의 구조다. 6.25에 의한 폭력의 구조를 보여주는 작품의 대부분은 「곡두 운동회」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한편 임철우의 초기작에는 5.18 폭력의 구조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작품이 없다. 5.18의 폭력은 윤간이나 어둠이라는 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표현된다. 그런데 5.18이 당시의 시대적 정황 때문에 알레고리적 방식으로만 드러낼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볼록거울」과 같은 알레고리적 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구조가 5.18 폭력의 구조라고 이해해볼 수도 있다.⁷⁾ 「볼록거울」 역시 「곡두 운동회」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볼록거울』의 화자는 학교와 학생 간의 대립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조교다. 그의 눈에 비친 학교는 어떤 기만적인 정치적 폭력에 휘둘러 교수와 학생

7) 실제로 알레고리적 소설이 보여주는 폭력의 구조는 『붉은 산 흰 새』, 그리고 『봄날』이 보여주는 폭력의 구조와 같다. 이에 관해서는 김주선, 「임철우 『봄날』의 재현 형식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참조.

간에 유리벽이 만들어진 폐쇄된 공간으로 나타난다. 학생들의 총학생회 구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문교부와 그에 동조하는 대학이 학생들의 총학생회 선거 기간에 중간고사를 치르도록 만들자 대립은 시험을 강행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성립한다. 즉 사태의 원인은 문교부로 대변되는 정부에 있는데 정작 벽을 쌓아놓고 대립하게 된 것은 교수와 학생 사이이다. 거대한 유리벽을 사이에 둔 그들의 관계는 어떻게 해도 닿지 못한 채 제자리에서 맴돌기만 한다. 둘 모두가 제 자리에서 제 말만 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학생들은 더 이상 스승인 교수들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교수들은 무례한 제자들에게 질려갔다. 그러자 불신과 증오가 스승과 제자 간의 친밀함을 완벽히 밀어내고 폭력과 결탁한다. 급기야 교수들과 학생들의 대립은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고 원한과 폭력은 서로를 흡아매는 사슬이 되어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권력을 동반한 하나의 힘이 만들어낸 대립 구조 속에서, 애초의 원인 제 공자는 어느새 사라지는 이 구조적 폭력⁸⁾에서 임철우가 강조하는 것은 그 사태에 연루된 사람들의 ‘책임’이다. 임철우가 다루는 사건에는 반드시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무책임한 동의가 있다.⁹⁾ 그것은 순수한 무지의 발로일 수도 있고, 묵인이나 방조 같은 암묵적인 동의일 수도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동참일 수도 있다. 어쨌거나 각각의 인물들은 거대한 폭력이 작동하기 위한 톱니바퀴 하나를 담당한다. 누구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를 원치 않았지만 누구도 사태의 해결을 위해 문교부와 싸우지 않았으므로 결국 거대한 톱니바퀴는 돌아갔다. 각각의 자리에서 행한 아주 작고 사소한 행위 하나하나가 결국 거대한 전체의 일부가 되어 전체를 옹호하게 된다. 즉 각각의 인물들은 저도 모른 채 연관되어 거대한 폭력의 톱니바퀴를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8) 이와 같은 폭력의 구조에 관해서는 김병익, 『연민 혹은 감싸안은 시선』, 『달빛 밟기』, 1987. 해설에서도 짚어진바 있다. 본고는 거대한 전체와 책임의 관계를 부가하고자 했다.

9) 이 같은 책임 연관은 임철우의 초기 소설 대부분에 해당된다.

그 수천 개의 혼한 일이 수만 개의 사소한 일들과 공모하여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 거대한 폭력의 톱니바퀴로 분명히 돌아가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 무수한 톱니바퀴의 날 하나가 사실은 바로 자기 자신의 틀림없는 몫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엄연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사람의 수효는 더욱 적었다. 바로 그 때문에 거대한 폭력의 톱니바퀴는 가공할 엄청난 힘으로 갈수록 가속되어, 지금도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서 척척척척 금속성의 구령 소리에 맞추어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¹⁰⁾

하지만 자신의 활동이 거대한 톱니바퀴의 일부가 되어 전체를 돌리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은 적다. 자신이 흉포한 전체의 일부임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사람은 더 적다. 바로 그 때문에 거대한 폭력의 톱니바퀴는 엄청난 힘으로, 더 빠르게, 변함없이 돌아간다. 이것이 임철우가 밝힌 폭력의 구조와 그에 얽힌 인물들의 책임 연관이다. 사건에 연루된 이라면 그 어떤 누구도 사건에 대한 책임 연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건에 의한 끔찍한 살육, 증오, 광기의 원환관계는 모두가 책임져야 할 모두의 비극이자 모두의 죄악이다.

3. 망각과 트라우마적 기억 및 책임

때문에 임철우의 초기 소설에서 망각과 기억 그리고 책임의 문제는 주의해서 봐야한다. 첫 번째 소설집인 『아버지의 땅』에서부터 나타나는 망각의 문제는 끔찍한 폭력 사건에 대한 기억과 책임을 모두 거부한 이들의 자기기만적 전략이었다. 6.25 폭력의 한 구조를 보여줬던 『곡두 운동회』의 마을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음에도 그 모든 것을 잊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잊는 게 편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결정과 판단, 선택이 그와 같은 폭력을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들

10) 임철우, 『블록거울』, 『달빛 밟기』, 문학과지성사, 1987, 215~216면.

다. 망각은 각 개인이 사건의 한 축을 담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거부의 방법이다. 이는 특히 5.18을 다루는 소설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광주 사람들은 집단적 광기에 빠져들기라도 한 듯 어떤 허기 속에서 속칭 응원단장인 ‘해태아줌마’에게 열광하고(『알 수 없는 일 2』), 남녀의 성기가 결합된 채 떨어지지 않는다는 괴이한 소문에 집착하며(『사산하는 여름』) 과거를 잊기 위해 노력한다. 과거는 완벽한 공포와 절망, 분노, 수치심, 죄책감 등으로 뒤덮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기억이다. 때문에 5.18을 천천히 잊어가려는 사람과 이에 저항하려는 사람의 충돌은 필연적이다.

『동행』은 5.18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주인공이 수배자가 된 친구를 만나 파멸적 상태로 얼룩진 마음을 내비치는 소설이다. 그는 내적 독백을 통해 5.18 이후의 삶이 설명하기 힘든 절망감으로 점철된 악취 풍기는 나날이었고 일상의 권태와 망각에 몸을 던져 넣은 시간이었음을 고백한다. 수많은 사람들을 잃고 살아남은 자들의 죄스러움도 그렇거니와 지난 시간 속에서 얻은 정신적 충격과 상흔은 잊으려 애써도 한 번씩 되돌아와 그를 다시 공포에 떨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죄스러움은 수배자가 된 친구의 형상을 어디서든 나타나게 만들어 더 자주 폭음 속에 빠지게 만들었고 망가져버린 정신은 기차에 치인 시체를 보고도 지난날의 끔찍했던 위험, 공포, 두려움, 무력감 등의 감정에 휩싸이게 한다. 그에게 5월 그날은 “섬찟한 순간의 기억”¹¹⁾이다. 그의 정신적 자기 방어 체계는 과거의 상흔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인간힘을 쓰는 중이다. 그런데 과거의 상흔이 트라우마적 수준으로 각인된 이가 그 하나뿐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광주 사람들의 병리적 태도는 이미 앞서 확인한 바다. 수많은 광주 사람들이 5월 그날을 망각하려 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기라도 하듯 ‘우리가’ 모두 깊이 잠들어서 영영 깨어나지 않을 잠 속으로 투신하기를 바란다. 여기서 ‘잠’이라는 수사는 시사적이다. 실로 거대한 정신적 상처를 얻은 자들에게

11) 임철우, 『동행』, 『그리운 남쪽』, 문학과지성사, 1985, 89면.

현실은 자신을 덮쳐오는 과거의 기억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들은 과거를 현재의 현실보다 더 현실처럼 느끼는 자들이다. 때문에 현실을 잠으로 만드는 것은 거대한 충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의 필사적 방어다.¹²⁾ 그러니까 『동행』의 한 편에는 친구와 같은 길을 걷지 못한 ‘우리’의 정신병리적 고통과 그 고통이 만들어진 실상을 감당할 수 없어 5.18로부터 벗어나려 노력하는 내용이 쓰여 있다. 충돌은 여기서 일어난다. 실제 수배당한 친구의 등장은 그들의 일상적 망각에 집어넣은 폭탄이다.

아아. 그런데 하필 이 순간에 내가 나타난 것이다. 그 불쾌하고 섬뜩한 악몽의 흔적을 우리의 졸리운 뇌리로부터 감히 곡괭이질 해내기 위한 하나의 음모로서, 그리고 그 악몽의 명백한 증거물로서 내가 나타난 것이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어저지를 쓰듯, 우리의 이 몽롱한 최면의 당밀분을 함부로 휘저어 희석 시키려는 당돌하고 무모한 음모와 함께, 너는 어쩌면 우리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공모하여 억지로 너를 가두어놓기를 원했는지도 모르는 저 네모난 사진 속으로부터 돌연히 뛰쳐나와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분명한 실체로 서 있는 것이다.¹³⁾

5.18이라는 광기의 폭력이 존재했다는 사실도 있고, 그 때문에 결사적으로 항전하다 수배자가 된 친구가 있다는 사실도 잊으려는 시도는 바로 그 친구의 등장으로 절명의 위기를 맞이한다. ‘수배자’가 된 친구는 5.18은 악몽이 아니라 어쩌면 악몽보다 더 끔찍한 현실이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체현한다. 야만의 시간을 잊으려 했던 이들은 그로 인해 형용하기 어려운 과거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 과거에서 벗어나 자신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려는 이들에게 그의 존재는 그 자체로 불길하다.

『직선과 독가스』는 트라우마적 상태에 빠져버린 화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화자는 그 누구도 말지 못하는 독가스 냄새가 온 도시에 퍼져 있다고

12) 정진석, 『충격과 잠의 관계에 관해서는 맹정현』, 『트라우마 이후의 삶』, 책담, 2015, 99면 참조.

13) 임철우, 『동행』, 『그리운 남쪽』, 문학과지성사, 1985, 79면.

민고, 심지어 빗속에도 독가스가 스며들어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독가스는 최악의 냄새이자 배신의 냄새고 비는 죽음의 비이자 최악의 비인데,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규정하기는 어렵다. 최악과 배신은 광주를 유린했던 폭력에 관한 것일 수도 있지만 5월 광주를 잊어가고 있는 광주 시민들을 향한 것일 수도 있다. 소설의 내용 자체가 한 편에는 5.18을 기억하려는 자에 대한 정부의 억압을 묘사하고 다른 한 편에는 5월 그날의 희생자들을 잊어가는 사람에 대한 반발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화자가 말하는 최악과 배신이 누구를 향한 것이든 화자가 건네는 문제의식은 명확하다. 핵심은 광주에서 학살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었음에도 살아남은 시민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잊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기이하게도 광주 사람들은 마치 죄인이나 된 듯이 살아가며, 따라서 여전히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지만, 그들은 잃어버린 존재를 영원히 잃어버린 존재로써 망각하려 한다. 누구도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는 5.18의 진실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는 사람은 5.18로 인해 망상적/트라우마적 정신세계를 갖게 된 주인공뿐이다.

<저는 지금 정체를 알 수 없는 독가스와 독극물로 인해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 주십시오. - 단식 나홀 제>¹⁴⁾

그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께말을 들고 매일 광주의 중심가로 나간다. 여기서 그보다 더 맹렬하게 5.18을 기억하고 책임지려는 이는 없다. 병리적 존재는 자신의 병리성 때문이라도 5.18을 더 강렬하고 절박하게 기억한다. 임철우 초기 소설에서 거대하고 부조리한 폭력이 만들어낸 사태를 그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책임지는 존재는 대개 그런 병리적 존재들이다. 그들은 심각한 트라우마적 상태에 빠져 고통스러운 기억을 반복하며 아무 때나 비명

14) 임철우, 같은 책, 142면.

을 질러댔으로써 독자에게 역사적 폭력의 병리성과 불길함을 전염시킨다. 『봄날』과 『수의』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상주는 임철우가 그리는 5.18의 병리성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상주는 5.18 때 죽은 친구 명부를 배신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트라우마에 걸려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는 친구를 세 번 배신했다. 첫째, 5월 그날 새벽 자신의 집 대문을 걸어 잠갔고 둘째, 그친 친구를 부인하는 일이 되었으며 셋째, 결국 피비린내 나는 새벽을 배신했다. 그러나 이것이 상주만의 일일까. 그날 새벽 도청에 남아 전사했던 사람들은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외롭게 죽어갔다. 군인들이 진격하는 소리가 담 넘어 들리는데도 모두가 침묵했다. 사람들이 도청에서 총에 맞아 죽어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바깥으로 뛰쳐나온 사람은 없었다. 때문에 소설 속에서 상주는 스스로를 3인칭으로 표현한다. 그에게 배신은 ‘우리들’의 배신이다. 그날 도청에서 전사한 사람들은 모두의 친구이거나 가족 혹은 동료였다. ‘우리’는 새벽을 배신했다. 그렇지만 여기서 죄책감은 상주만의 것이다. 그는 명부가 늘 자신을 따라다닌다는 환상에 시달리다 자해를 시도한다. 상주는 명부라는 죄책감의 대리표상에 종속된다.

어제 한 인간의 생명이 고작 육신의 죽음과 함께 끝나 버리고 마는 것이라. 살덩이를 흙 속에 묻고 나서 너는 나의 기억 속으로 살아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 너는 이제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완전한 저주였다. 이제 영영 네 손아귀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너로 하여 내 발에 채워진 족쇄로부터 영원히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나는 알았다. 너는 밤마다 방문을 잡아 흔들며 문을 열어 달라고 애원한다. - 어디에 있었느냐. 그 새벽 네 이름을 불러 찾을 때 너는 어디서 무얼하고 있었더라 하고.¹⁵⁾

죽은 이의 복귀만큼 끔찍한 것은 없다. 그는 살아 있는 자들의 세계에 어떤 형식으로도 개입하여 자신의 몫을 요구한다. 그가 죄책감과 관련해 복귀한다

15) 임철우, 『봄날』, 같은 책, 161면.

면 파급력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진다. 죄책감은 한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감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애도는 살아 있는 존재가 죽은 이의 복귀를 막는 상징적 행위다. 대상을 상실해도 대상을 향해 있었던 관계적 감정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 감정을 어딘가로 돌려야 한다. 애도는 관계적 감정을 해소함으로써 다시 대상을 죽이거나, 관계적 감정이 항할만한 다른 대상을 찾아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애도가 완결되고 살아 있는 자의 일상은 정상으로 복귀한다.¹⁶⁾ 『알 수 없는 일』²⁾와 『사산하는 여름』의 광주 시민들, 그리고 『동행』의 주인공은 애도 속에서 5.18을 견디고 있었다. 하지만 상주의 경우처럼, 아니 5.18에 의해 트라우마적 상태에 빠진 인물들의 경우처럼 대상에 대한 애도를 결코 종결시킬 수 없는 존재는 영원히 대상의 상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들은 어떤 장면에 압도되어 영원히 그것을 강박적으로 떠올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 달리 말해 그들의 의식은 그들의 기억을 통제하지 못한다. 그들은 과거를 기억하는 자가 아니라 그 기억에 지배당하고 침입당하는 존재, 과거에 대한 책임을 영원히 부여받은 존재다¹⁷⁾ 그들은 과거에 완벽히 집어 삼켜졌다. 이는 그날의 표상에 완벽히 매몰당해 그날의 충격적인 표상을 끝내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내려진 형벌이다. 임철우의 초기 소설에 속을 알 수 없는 검은 구멍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와 관련하여 살펴야 한다. 대상의 상실에 의한 슬픔이 애도에 의해 극복된 존재는 자기 결여의 형태와 내용을 새로 갖춘다. 결여는 상징적 질서 속에서 무엇이 결여 되어 있는지 무엇을 새로 채워야 하는지 아는 게 가능하다. 그러나 대상의 상실에서 벗어나지 못한 존재는 결여가 아니라 하나의 구멍을 갖는다. 그 구멍은 속에 무엇이 있는지, 어느 정도로 깊은지 알 수가 없다. 구멍은 상징화 불가능한 블랙홀이다.¹⁸⁾ 그들의 트라우마적 상태가 꼭

16) 애도에 관해서는 맹정현, 『멜랑콜리의 검은 미술』, 책담, 2015, 42~49면 참조.

17) 트라우마를 앓는 인물과 애도의 종결 불가능성에 관해서는 맹정현, 『트라우마 이후의 삶』, 책담, 2015, 77~78면.

18) 상징화 불가능한 차원에서 구멍이 나타난다는 점에 관해서는 맹정현, 『멜랑콜리의 검은

이와 같다. 그들은 애도를 종료할 수 없다. 그들은 트라우마라는 반복 강박 속에서 극단적 공포, 극단적 두려움, 극단적 죄책감을 영원히 반복한다. 때문에 그들이 존재하는 한 5.18은 결코 잊히지 않는다. 그들의 병리성은 주위 사람들에게 전염되어 5.18을 불길한 상태로 되살린다. 그들이 병리적으로 존재하는 한 5.18은 영원히 제 병리성을 전염시키며 존재할 것이다.

4. 트라우마적 인물의 묘사와 의미론적 탐구의 상호 보완성

한데 여기서 임철우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봄날'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수의』를 보자. 이 소설은 『봄날』에 나타난 (임철우 본인으로 보이는)상주의 후일담이다. 여기서는 『봄날』에서 설명되지 않은 상주의 배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세히 드러난다. 그런데 소설의 핵심은 상주의 기억과 그의 병리성에 있지 않다. 핵심은 5.18의 정체를 둘러싼 의미론적 싸움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음에도 상주의 트라우마적 기억이 그를 자폐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임철우의 초기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트라우마적 모습은 5월에 대한 병리적 증상처럼 존재함으로써 그 주위의 사람들을 어떤 불안 속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지만, 정작 그 인물들은 특정한 기억에 종속되어 헤어 나오질 못한다는 점이 문제다. 트라우마는 결국 반복강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트라우마는 극복해야 하는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정신과 의사의 수없는 격려에도 상주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상주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햇볕의 한쪽 모서리가 슬리퍼 앞까지 밀려나와 있었다. 거기, 빛과 어둠은 서로 한 치의 틈도 허용치 않은 채 완강하게 대치해 있었다. 팽팽히 맞물린 그 두 개의 파괴적인 힘 사이엔 놀랍게도 너무나

완벽한 균형의 구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는 보았다. 상주는 부질없이 그 맞물린 경계선을 발끝으로 초조하게 문질러 대었다.

부끄러움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건 도피야. 넌 패배주의자라구. 병기가 성난 눈초리로 쏘아보며 소리쳤다. 녀석의 입술이 하얗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우린 공범이에요. 난 친구의 목숨을 팔아 넘긴 비겁한 배신자라니까요. 상주는 자꾸만 손톱을 물어뜯어 대었다.¹⁹⁾

상주를 찾아온 사람들은 부끄러움과 죄책감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질타한다. 하지만 실제로 배신이 일어났던 과거를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낼 수 있단 말인가. 뒷보다 트라우마적인 기억이 완벽하게 정돈된 삶은 결국 5월 사건이 만들어낸 병리적 차원을 정돈해서 길들인다. 하나의 사건이 잘 정리된 기록으로 남는다면 그 사건의 박제화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의미론적 싸움을 지속하지 않는다면 진실은 사라지고 병리적 인물만 남게 된다. 때문에 5.18을 병리적으로 드러내 영원히 기억 속에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길과 5.18이 어떤 사건인지 그 정체를 밝혀내는 길이 동시에 필요하다. 인용문 속의 빛과 어둠이 한 치의 틈도 허용치 않은 채 완강히 대치하는 것처럼, 트라우마적 기억을 지속시키는 것과 그 기억에서 벗어나 5월에 대한 의미론적 싸움을 전개해 나가는 것은 이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바 5월은 왜곡 되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5월에 대한 병리성을 드러냈다면 이제는 5월이라는 사건의 의미론적 차원을 파헤쳐야 한다.

그래. 자네 말처럼, 상주 자넨 비겁했었는지 몰라. 분명히 그랬어. 그건 자네뿐만 아니라, 그들의 죽음을 방관한 채 아직 살아 있는 우리들 모두 역시 마찬가지겠지…… 하지만, 우린 결코 패배자는 아냐. 자네도 나도 또 자네의 어머니도…… 그 누구이든 패배자라고 부르기엔 아직은 너무 일러. 살아 있는 한, 살아야 할 시간이

19) 임철우, 「수의」, 『물 그림자』, 문학과지성사, 1991, 209면.

우리 앞에 남아 있는 한, 인간은 그 누구에게든 패배자라는 누명으로 마지막 판결을 내려서는 안 돼. 또 감히 그럴 권리를 지닌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어. 그런데도 자넨 지금껏 스스로를 패배자로 만들려고 해왔어. 그러나, 자넨 결코 패배자가 아냐. 살아 있는 한, 싸움은 언제나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닐까? 무엇보다도, 자네가 치러야 할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겨져 있잖나.

(…)

정말…… 늦지 않았을까?…… 아직?

상주는 불현듯 그렇게 중얼거렸다. 갑자기 형언키 어려운 어떤 그리움으로 울컥 목이 메어 왔다.²⁰⁾

상주는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채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살아야 할 시간이 남아 있는 한 인간은 패배자가 아니다. 미래가 종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삶을 다시 만들어나갈 수 있다. 미래는 당도했을 때에만 그 필연성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싸움은 언제나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상주는 의사의 오랜 격려와 조언 속에서 기억 속에만 갇혀 있지 않을 미약한 의지를 얻는다. “치러야 할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겨져 있”다는 것은 상주(임철우)의 다른 삶을 위한 조건이다. 실제로 『수의』는 1987년 가을에 발표되었고, 5.18의 전사 격인 『붉은 산, 흰 새』는 이듬해 봄에, 그 후 5.18에 대한 총체적 재현이라는 평을 받는 『봄날』이 연재된다. 즉 임철우는 5.18과 같은 역사적 폭력의 형태를 트라우마적 인물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는 한편 그와 같은 사건의 정체와 의미론적 차원을 다시 그려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5. 나가며

전쟁 미체험 세대로 분류되어 있는 동시대 다른 작가들, 예컨대 양선규²¹⁾

20) 임철우, 같은 책, 215~216면.

나 이창동²²⁾의 문제의식이 전쟁을 겪은 아버지 세대와 자식 세대의 적대를 화해시키는 데 집중되어 있다면 임철우는 화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로 그 적대가 존재하게 된 구조적 차원을 탐구하고 인물들의 책임 연관을 밝혀냈다. 이는 6.25나 5.18 당시 발생했던 집단적 폭력들의 정치적 차원을 밝히는 게 아니라 폭력에 전염된 인물들 간의 증오와 원한의 순환 고리를 만들어낸 메커니즘 및 책임 연관을 매섭게 찾아내는 작업이다. 임철우는 자신의 초기 소설에서 거대한 역사적 폭력의 한 일반적 구조를 밝힌 것이다. 임철우의 초기 중·단편 소설이 갖는 의의는 이뿐만이 아니다.

임철우의 초기 소설은 그가 5.18과 같은 트라우마적 사건을 서사화하는 두 가지 방식을 염두에 뒀다는 점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각별하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봄날』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5월에 대한 총체적 글쓰기, 5월을 남김없이 말하는 남성적 글쓰기 같은 것이었다. 그 장편소설 하나로 임철우는 5월에 대한 제도적 기록자가 되었다. 반면 최윤의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²³⁾는 5월을 정신병리화 하여 영원히 제도권 밖에 두는 불길한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본문에서 살폈듯이 임철우는 트라우마적 인물 묘사를 통해 5월을 병리적으로 그렸을 뿐만 아니라 그 한계도 숙고했다. 트라우마적 인물 묘사는 5.18이라는 사건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기여하는 바가 적다. 5.18이 고통스러운 감정 속에서만 존재한다면 5.18의 의미론적 차원은 혼돈 속에서 사장될 뿐이다. 따라서 두 가지 글쓰기가 동시에 필요하다. 첫째, 사건의 정체를 고정하지 않은 채 널리 그 불길함을 퍼트리는 트라우마적 서사 둘째, 5.18이라는 사건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5.18의 정체를 재현하기. 여기서 두 번째 작업은 여전히 왜곡되어 퍼져 있는 5.18의 정체를 알리는 가장 정확한 길 중 하나가 된다.

21) 양선규, 「난세일기」, 『속리!속리! 난세일기 설정 외』, 동아출판사, 1996.

22) 이창동, 『소지』, 『소지』, 문학과지성사, 2015.

23) 최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문학과지성사, 2011.

임철우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서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 스스로의 소설을 통해 알렸다. 이제 임철우의 성취는 다시 평가받아야 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임철우, 『아버지의 땅』, 문학과지성사, 2015.
_____, 『그리운 남쪽』, 문학과지성사, 1985.
_____, 『달빛 밟기』, 문학과지성사, 1987.
_____, 『물 그림자』, 문학과지성사, 1991.

2. 단행본

- 김병익, 『연민 또는 감싸안는 시선』, 『달빛 밟기』, 문학과지성사, 1987.
맹정현, 『멜랑콜리의 검은 미술』, 책담, 2015. 42~49면, 221~223면.
_____, 『트라우마 이후의 삶』, 책담, 2015. 77~78면, 99면.
성민엽, 『폭력과 화해』, 『물 그림자』, 고려원, 1991.
_____,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문학과지성사, 2004.
양선규, 『난세일기』, 『속리!속리! 난세일기 설경 외』, 동아출판사, 1996.
이창동, 『소지』, 『소지』, 문학과지성사, 2015.
최 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문학과지성사, 2011.

3. 논문

- 공종구, 『임철우 소설의 트라우마: 광주 서사체』, 『현대문학이론연구』 제11집, 현대문학이론학회, 1999, 5~24면.
김주선, 『임철우 『봄날』의 재현 형식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김주연, 『임철우 소설의 가족 로망스: 198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1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1, 153~169면.
유홍주, 『임철우 소설의 의미 강화 기법 연구 - 『봄날』 이전의 중,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3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101~122면.
이동재, 『1980년대 임철우의 소설에 대한 한 가지 독법』, 『우리말 글』 제65집, 우리말글학회, 2015, 233~263면.

Abstract

Study on Lim Chul-woo's Early Short and Medium-length Stories

- Focusing on the structure and memory of historic violence -

Kim, Ju-s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pecify the structure of historic violence appearing in Lim Chul-woo's early short and medium-length stories, and to determine the meaning of people's memory of this violence. Through his stories about the structure of violence in 6.25 and 5.18, Lim Chul-woo would show the mechanism that forms hatred and grudge among people. Here, all the characters in this mechanism are responsible for committing related incidents. This is the general structure of historic violence grasped by Lim Chul-woo. On the other hand, those that remember the incidents from the traumatic aspect show that Lim Chul-woo would focus on two narrating styles of traumatic incidents such as 5.18. First, in his early stories, Lim Chul-woo shows 5.18 from the psychopathological aspect related to a sense of excessive guilt, which would give certain anxiety to readers continuously. However, traumatic memory has a demerit in that it could prevent the approach to the actual truth of 5.18. Thus, Lim Chul-woo's early stories request semantics dimension work on not only the pathology of traumatic incidents but also the truth of those incidents. That is, he already deeply considered the antagonistic relationship of the two.

Key Words : 6.25, 5.18, structure of historic violence, trauma, writing, Lim Chul-woo

* Chosun University

<필자소개>

이름 : 김주선

소속 :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 rangrang9908@naver.com

논문투고일 : 2018년 12월 30일

심사완료일 : 2018년 2월 19일

게재확정일 : 2018년 2월 20일